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2. 12. 28
해외동향부 (제 6401)

■ **주요 뉴스: 미국, 국채금리 큰 폭 상승. 중국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반영. 독일일본도 상승세**

○ 미국 10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 4개월 연속 하락. 금리상승 등이 원인

○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 국가에 내년 2월부터 원유 수출 중단

○ 중국, 1~11월 공업이익은 전년비 감소. 향후에는 개선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철회에 따른 경제 영향 전망 등이 배경**
주가 하락[-0.4%],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기술주 중심 매도 확대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의 경제활동 증가 기대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상충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 엔화는 0.5%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지속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74.5원, +3.1원) 강보합, 한국 CDS 상승

		12/27일	12/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29.3	휴장	-0.40%
	유럽	428.00	휴장	0.13%
	중국	3,095.6	3,065.6	0.98%
	일본	26,448	26,406	0.16%
	한국	2,332.8	2,317.1	0.68%
환율	달러지수	104.20	휴장	-0.11%
	유로화	1.0640	1.0637	0.03%
	엔화	133.49	132.88	-0.46%
	위안화	6.9601	6.9627	0.04%
	원화	1,271.4	1,274.8	0.27%

		12/27일	12/26일	전일대비
국채금리 10y	미국	3.84%	휴장	9bp
	독일	2.52%	휴장	12bp
	영국	휴장	휴장	-
CDS 5y	한국	54bp	53bp	1bp
	중국	74bp	75bp	-1bp
위험지표	EMBI+	-	374	-
	VIX	21.65	휴장	3.74%
원자재	WTI유	79.53	휴장	-0.04%
	구리	383.4	휴장	0.80%
	금	1,813.7	휴장	0.8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국채금리 큰 폭 상승. 중국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반영. 독일·일본도 상승세**

○ 미국 주요 국채금리(10Y 3.84% +9bp, 2Y 4.37% +5bp)는 중국의 입국자 의무격리 폐지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반영되며 급등. 특히 10년물 금리는 11/14일 이후 최고치

○ 10월 중순 이후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하던 주요 국채금리가 최근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의지 등이 확인되면서 반등이 지속.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촉진 기대가 더해진다면 금리인하 시기는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될 소지

○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려면 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되어야 가능. 완만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 수 있지만,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Miller Tabak+의 Matt Maley)

○ 한편 독일 10년물 국채금리(2.52% +12bp) 역시 ECB의 통화긴축 의지 등이 반영되어 14년래 최고치. 일본 10년물 국채금리(0.48%, +3bp)도 '15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일본은행의 초완화 통화정책 중단 가능성 등으로 국채수요가 부진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 4개월 연속 하락. 금리상승 등이 영향**

○ 10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비 0.8% 하락했고, 연간 상승률은 8.6%로 전월(10.4%) 대비 둔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높은 수준의 모기지금리 등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S&P의 Craig Lazzara)

■ **미국 11월 상품무역 수지 적자, '20년 2월 이후 최소. 큰 폭의 수입감소에 기인**

○ 11월 상품무역 수지 적자는 833억달러로 전월(-988억달러) 대비 급감. 이번 결과는 수입의 큰 폭 감소(2520억달러, 전월비 -7.6%)가 주요 원인. 수출(1689억달러, 전월비 -3.1%)도 부진. 최근 주요 소비 대상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상품에 대한 수입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ECB 부총재, 유로존은 내년 경기회복 이전에 경기침체 진입 예상**

○ 데 귄도스 부총재는 유럽이 고물가, 성장둔화,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기에 개인과 기업은 장기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ECB의 금리인상 지속이 예상되나 최종 결정은 회의마다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

■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 국가에 내년 2월부터 원유 수출 중단**

○ 푸틴 대통령은 2/1일부터 5개월 동안 유가 상한제 도입 국가에 원유 공급을 금지한다고 발표. 석유제품 공급도 금지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 최근 G7, EU,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

○ 한편 독일 경제부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중단해도 다른 국가의 원유 수입을 통해 자국 내 정유시설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

■ **중국, 1~11월 공업이익은 전년비 감소. 향후에는 개선될 가능성**

○ 1~11월 공업이익은 전년비 3.6% 줄어 7.7조위안을 기록. 이는 1~10월의 3.0% 감소에 비해 더욱 악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둔화 등이 이번 결과에 영향. 향후에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증가 예상(통계국의 Zhu Hong)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코로나19 타격이 큰 산업을 지원할 방침**

○ 여행업, 요식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경제회복 촉진 및 이를 통한 소비확대 유도 등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원을 통해 고가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일본 11월 소매매출, 5개월 만에 첫 전월비 감소. 인플레이션 등에 기인**

○ 11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1.1% 감소하여 10월(0.2%) 및 예상치(-0.2%) 하회.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및 이연 수요 둔화 등이 반영. 가격 상승이 점진적으로 소비자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Meiji Yasuda Research Institute)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잠정주택판매 및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세계경제에 양날의 검 - 블룸버그**
(Farewell Covid Zero - 2023 Upside, Near-Term Test)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및 빠른 경제활동 재개는 대내적으로 `23년 성장률을 기존 5.1%에서 최대 6.3%까지 끌어올릴 가능성. 대외적 측면에서도 중국인들의 관광수요 확대에 따른 전세계 서비스업 활성화, 글로벌 공급 차질 완화 등의 긍정적 영향도 기대

○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빠른 경제활동 재개가 중국의 원자재 수요 확대를 초래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소지. 중국 춘절기간 동안 인구이동 증가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영향을 고려 시 내년 1~2월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

■ **미국 투자부적격 기업, 내년 자금조달 비용 관련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The Junk Bond Reckoning Is Coming in 2023)

○ '21년 후반 금리인상이 시작되었으나 대다수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저금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그러나 '24년 만기 고수익 채권 리파이낸싱이 필요한 기업들은 내년부터 경기침체 발생 시 등으로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채권수익률 스프레드는 경기침체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70%인 가운데 진입 시기를 내년 4월로 가정한다면(UBS) 기업들이 저비용 리파이낸싱이 가능한 기간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관측. 이에 향후 투자부적격 기업의 채무불이행은 늘어날 소지

■ **미국 대형은행, 내년 경기침체에도 건전성은 양호할 전망 - 블룸버그**
(Recession, Rate Hikes, Diversity: What's Ahead for Banks in 2023)

○ 경기침체는 통상적으로 신용여건 악화를 의미. 그러나 내년 경기침체가 발생한다고 해도 대형은행에 미칠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 이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 사전에 충분한 유동성 확보, 과도한 위험투자 자제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 유지가 예상되기 때문

○ 다만 일부에서는 은행법 규제 위반 관련 처벌 강화(최근 웰스파고는 광범위한 부실경영을 이유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 등을 위험요인으로 거론. 또한 경기침체 시 대손충당금 증가와 이로 인한 순이익 감소 등도 주의해야 할 사안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 투자자들의 대중국 경제 전망 재평가 가능성 - 블룸버그**
(India and China - a 2023 Tale of Two Markets)

○ 해외 투자자들은 그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시장 위축, IT기업에 대한 징벌적 반독점 캠페인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유지. 그에 따라 MSCI 신흥국지수에서 중국 비중은 2021년 5월 35%에서 28%까지 하락

○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결정.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신뢰 및 소비자 심리 개선,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 탈피, 자동차 판매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또한 향후 12개월 기업이익 전망의 4% 상향 조정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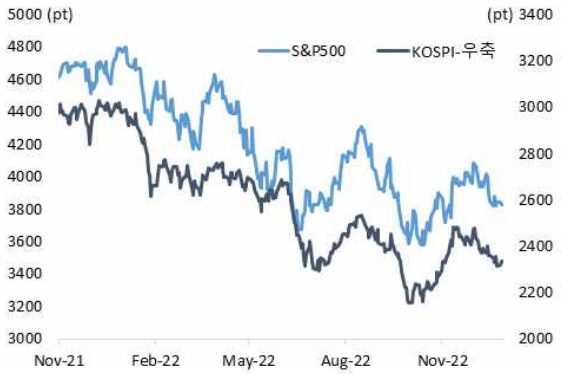
■ **글로벌 고물가, 내년 경기침체를 초래할 주요 요인 - Financial Times**
(Year in a word: Inflation)

■ **미국 지방채 가격 하락, 내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속될 소지 - WSJ**
(After Muni-Bond 'Bloodbath,' Expectations for 2023 Are Muted)

■ **세계 자동차 부품 공급망 탈중국화, 중국의 정치적 탈동조화 등에 기인 - Financial Times**
(Carmakers quietly cut ties with China in supply chain shake-up)

금융시장 주요 지표

S&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

자료 : Bloomberg

VIX 및 EMBI+

달러-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